

공감! 작은도서관 사업

#충북 청주시

#마을네트워크 특화

초롱이네 도서관



초롱이네도서관은 초롱초롱한 어린이와 어른들의 도서관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재밌어서 저절로 눈빛이 반짝입니다. 이번 특화지원사업으로 도서관 건물도 정신이 번쩍 나게 다시 세워졌으니, 청주의 용바위골 근처 어딘가가 빛나는 곳을 찾아오시면 그곳이 초롱이네도서관입니다.

처음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초롱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빌려 '이웃의 친근한 작은도서관'인 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초롱이도 도서관도 모두 나이를 먹었습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초롱이네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사실 이번 사업으로 특화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과 공간의 개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느끼던 차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작은도서관의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 운영에 참여해 온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보자고 결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부담을 내려놓는 것보다 애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업지원서를 내기 전에 세 번,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 두 번의 간담회자리가 있었습니다. 운영진과 도서관후원회원들, 지역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초롱이네 도서관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이야기자리가 거듭될수록 상상하고 꿈꾸는 도서관 모습이 점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도서관으로 논의를 좁혀가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초롱이네도서관의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을 특화의 주제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분야의 '네트워크특화'라는 사업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예산을 세우고 시작했는데도 예측했던 것보다 건물이 많이 상해있어서 예산이 계속 초과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특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도서관에 바라는 모습을 기대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금액이 발표되고 공사 예산이 커질수록 비용 마련에 대한 무게로 힘겹기도 했습니다.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행사와 모금활동을 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목조건축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아 세세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부담이 컸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기울어진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기에 적합한 컨설팅이 꼭 필요했습니다. 공사시작부터 완료시기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청주에 내려오셔서 과정을 살피고 시공업체와 조율해 주신 정환수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사 전 외관



▲ 안전을 위하여 기울어진 도서관을 바로 세우는 공사 과정의 모습



도서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은 도서관 사람들의 마음도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화지원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힘을 모아 해냈다는 성취감도 함께 느끼고 변화된 도서관을 이용하는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나갈 일이 까마득한데도 ‘하면 된다’는 근자감(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SNS에서 ‘기울어진 초롱이네도서관을 세워주세요’란 제목으로 스토리 펀딩(같이가치)을 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초기에는 홍보수단이 미흡하여 자부담 금액 마련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역신문 충청리뷰에 ‘기우뚱 초롱이네도

기울어져가는 **초롱이네도서관**
바로 세워주세요



김수원이란이 그림

서관을 세워주세요' 기사가 실리면서 지역에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진들의 지극한 노력으로 지역사업체의 후원을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후원금 모금에 활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카카오의 '같이가치'에 모금과 홍보를 했습니다. 500만원 목표액을 90%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응원과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해주는 익명의 댓글들에서 힘을 얻는 새로운 경험을 했지요. 작은도서관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언니 따라 초롱이네도서관에 오던 수인이가 그려준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아이의 방식으로 표현한 그림들 하나하나가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 공사 후 외관

큰 부담이었던 자부담 금액 마련이 해결되었고, 초롱이네도서관은 안정적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동안 지역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 ‘기울어진 초롱이네도서관 세워주기’ 하루차집 및 후원금 모금에 지역의 기업들과 단체 및 개인후원자들이 다수 참여했지요. 이제 더 안전해지고 안정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더 나은 독서문화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과 연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 공사 후 내부 모습

궁금해 하던 어린이와 어른들도 개관 전 후로 많이 다녀갔습니다. 초롱이네가 한결 튼튼해지고 넓어 보인다고 모두 좋아하십니다. 벌써 인근의 작은 학교 두 곳에서 ‘도서관에서 하룻밤자기’활동을 했습니다. 견학방문과 모임대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참동안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롱이네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한가요?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공간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아무래도 대대적인 건물 공사 준비, 진행, 정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화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역 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과 크고 작은 토론모임들을 열면서 공간의 역할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특화’는 특별한 무엇을 새로 기획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환경에서 생긴 특별함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화를 고민했던 초롱이네 활동가들 스스로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